

# 넥센타이어, 미국시장서 인기폭발

## 고성능타이어 중심 2009년 매출 38% 증가 ... 1/4분기도 호조 이어져

고성능타이어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넥센타이어가 미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미국의 타이어 수요는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감소했지만 넥센타이어의 매출은 UHP타이어 등 고성능타이어를 중심으로 38% 증가했다.

2010년 1/4분기에도 북미시장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8.2% 늘었고, 전기대비로도 22.4%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미국시장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인 UHP타이어 중심으로 과거 5년간 75%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유력 타이어 전문잡지인 모던타이어딜러도 UHP타이어의 시장점유율이 5%대로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5년간 연구인력을 3배로 늘리고 최첨단기술이 집목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매출 9662억원, 영업이익 1662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렸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익률과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4>